



즉시 배포용: 2018 년 9 월 1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 뉴욕주의 수소불화탄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

*Trump 행정부의 수소불화탄소(HFC) 금지 정책 폐기 후 뉴욕주는 자체 규정 추진*

*Cuomo 주지사, 다른 주에도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행동에 동참 촉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오염 감소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 퍼센트를 감축하려는 주지사의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력한 온실가스 오염 물질군인 수소불화탄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정을 선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은 Trump 행정부 들어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폐기하는 주요 신규 대체물질 정책(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도의 변경 사항을 채택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지구 환경의 보호 노력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지만, 뉴욕주는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수소불화탄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주들도 위험한 수소불화탄소(HFC)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뉴욕주는 무책임하게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삶을 위해 택해야 할 길이 아니라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후 변화와 싸워나가며 우리의 경제, 우리의 소중한 지구, 우리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본 규정에서는 새로운 소비자 제품, 새로운 장비, 규정에서 정한 날짜 이후에 개조 또는 개장된 장비에 사용되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에어로졸 추진체(스프레이 가스), 상업 및 주택용 식품 냉동 장비, 상업용 에어컨 장비, 경량자동차 에어컨 및 발포제가 포함됩니다. [2020년부터 2024까지 실행하게 되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불화탄소(HFC) 배출량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보존부(DEC)는 공식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2019년에 규칙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규정은 2018년 주정연설에서 Cuomo 주지사가 환경보존부(DEC)로 하여금 다른 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뉴욕주의 수소불화탄소(HFC)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방침의 실현을 뒷받침합니다. 뉴욕주의 제안은 오존 파괴 물질의 대체물질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의 키갈리 개정안(Kigali Amendment)뿐 아니라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의 목표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제안을 완결하면서 이러한 위험 오염 물질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의 대열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장에서 수소불화탄소(HFC)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요구하면 산업계에서 국가적, 세계적 규모로 이러한 오염 물질의 단계적 폐지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서 수소불화탄소(HFC) 대체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서는 뉴욕의 결정에 득을 볼 것입니다.

주 기금을 활용하여 수소불화탄소(HFC) 사용량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은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위한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거의 9백만 달러의 자금을 포함합니다. 이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냉매 누출 감소, 냉동, 냉각 또는 공조 장비(예: 식품 저장고 또는 아이스링크 장비)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도록 교체 또는 개장, 냉매 누출 모니터링 장비 설치, 모니터링 및 수리 계획 수립, 냉매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강화된 폐기 프로그램 확립, 대체 냉매 사용 촉진을 위한 법규 또는 기준 채택을 위한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환경보호기금에서 나온 1백만 달러의 추가 자금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수소불화탄소(HFC)와 기타 기후변화 유발 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소비자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가전기기 및 기타 솔루션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특정 가전기기나 장비를 신규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역의 소비자는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또는 지역 공공시설을 통해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9월 13~14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글로벌기후행동정상회담(Global Climate Action Summit)에서 수소불화탄소(HFC) 사용 폐지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계속 우리의 전진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 뉴욕주는 환경 보호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한걸음씩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각종 제품에서 수소불화탄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파리기후협약의 일부로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수소불화탄소(HFC)와 메탄 같이 강도 높은 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서는 뉴욕의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주도로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에 소속된 다른 주와의 협력을 통해 이런 위험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어린이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제안 규정을 작성, 검토, 수정해나가면서 뉴욕주와 다른 기후동맹 가입 주가 2018년 6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유발 물질 대책(Short-Lived Climate Pollutant Challenge)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의 Alicia Barton**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로운 배출 물질 저감은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미국을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정책과 관련 투자를 통해 가장 압박이 심한 환경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정면 대응하는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 보호

**Cuomo** 주지사의 기후변화 정책은 미국을 더욱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역 온실가스 감축 협약(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과 같이 미국을 선도하는 노력과 활동을 통해 인간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방출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다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분명한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열을 가두는 효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25 배 이상 강력한 오염물질인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7년에 25 포인트 메탄 감축 계획(25-point Methane Reduction Plan)을 출범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후에, 뉴욕은 이 협약의 목표를 유지하는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을 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및 워싱턴 주와 힘을 모았습니다.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은 미국 국내 총생산(U.S. gross domestic product)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들의 주지사 17 명이 동참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야심에 찬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성 등과 같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좀 더 깨끗하고 더욱 복원력을 갖춘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REV) 전략은 뉴욕주가 범경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퍼센트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 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www.ny.gov/REV4NY](http://www.ny.gov/REV4NY) 를 방문하시고, @Rev4NY 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